

“새만금 묘목장, 환경에 기여하고 지역상생으로 ESG 사회가치 실현”



- 이소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새만금 농생명용지(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일원) 중에 면적 100ha의 묘목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 공사는 묘목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환경에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보는 새만금 묘목장 전경, 육묘장(가운데), 묘목장 조성부지(왼쪽)]

우선 국가의 주요 의제인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7년까지 새만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묘목 77만 그루를 키워 새만금에 식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농생명용지 방풍림은 매년 8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단 방풍림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의 강한 해풍을 저감시켜 농작물의 안전한 생장을 돕는 방풍림 자체로서의 역할도 매우 크다. 또한 숲은 앞으로 다양한 주거와 업무 공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을 부양하는 녹지축으로 역할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광활하지만 아직 황량하다. 이러한 곳에 방풍림 같은 숲을 만드는 것은 새만금의 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숲 그 자체로 개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속가능대책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방풍림 조성 전경]

이와 함께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묘목장에서 필요한 일손과 장비 대부분을 인근 농촌마을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직접 고용에 따른 공사 직원들의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되는 것보다 적절한 임금과 개선된 근로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용인원은 2020년에는 연인원 2500명을, 2021년도에는 8월까지 5,000여명에 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작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로서 함께 모여 일하며 친목활동도 같이 할 수 있어 지역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만금 묘목장 지중재배시설 묘목 식재 전경]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묘목장에서 키운 묘목을 우선 농생명용지 방풍림 조성에 공급하는 것 외에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들에도 가능한대로 공급하면서, 숲 조성과 관리 기술을 공유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에서 숲을 만드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협업해 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묘목장이 누구나 잠시 들러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공간, 사막속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녹색 새만금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본다.

(다른 구성시 활용 - 예비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이소열 단장은 새만금사업 초창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조사설계부장, 공무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지난해 5월 새만금에 다시 합류했다.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근무한 연수만 10년을 훌쩍 넘어서다. 새만금사업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이소열 단장을 만나 새만금사업에서 실시중인 특성화된 ESG 사회가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